**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 상승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

#### 재학

#### 연락처

cellosuiteno1[@protonmail.c](mailto:snowypainter@protonmail.ch)om

# 개요

선진국의 도시화율 변화 그래프에서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보다 더 긴 기간동안의 증가세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 가속화 단계에서 그 말기에 다다르기까지의 기간은 동일 단계일때의 선진국보다 훨씬 짧다. 이러한 현상에 답하기 위해, 산업화와 종전 이후 Baby Boom 시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Baby Boomer 세대가 도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에, 그리고 선진국들에서의 동일한 도시화 단계에서 년간 도시화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음을 파악했다.

# 도시화의 단계별 특성

국가의 도시화율 변화 그래프를 그렸을때 초기, 가속화, 종착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기는 산업화가 진행되기 이전이며 매우 낮은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된다. 1920년대 조선에도 상가 건물이 있었고, 주거 지역이 작은 면적에서 만큼은 생성되었던 것-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본다면, 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였다.

가속화 단계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같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청장년층이 교통의 이점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산업혁명의 직업을 갖기 위해 이촌향도한다. 이러한 번식 및 생산 가능 인구인 청장년층의 이촌향도가 계속되어짐에 따라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며-교외화 현상- 도시화율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더불어서 산업화는 당시 그것을 경험하는 일부 인류의 번식욕을 강하게 자극했다. 이러한 연유로 도시의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에서 출산되었다. 도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시작된 것이다.

종착 단계에 도달하면 도시화율 증가 추세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되려 역도시화 현상이 관찰되어진다.

# 선진국의 산업화 이후 도시화율의 특징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 큰 도시를 형성하게하고, 이렇게 형성된 큰 도시는 다양한 흡인요인을 제공한다. 선진국은 이런 이촌향도로, 그리고 그에 따른 출산 증가로 도시화율이 상승하게되었다. 그러나 같은 도시화 단계의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년간 도시화율 상승폭은 작은편이다.

# 도시화, 인구증가 그 둘과 도시화율의 상관관계

도시화율 상승 요인에는 이촌향도 현상과 도시 내부에서의 인구 자연적 증가가 있다. 이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공통적인 것이라서 얼핏 비슷하게 보여야할 년간 도시화율 상승폭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두 국가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으로 직결된다.

도시화율 상승에는 사람들의 수 또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촌향도한 인구 수는 도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 속도에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선 설명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도시화율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진다. 바로 Baby Boom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로 모일 이유를 제공하는 산업화의 시기와 아이들이 많이 출산되는 Baby Boom 시기가 겹친다. 그래서, 그 선진국의 도시화율 가속화 단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청장년층-이 이동한 것이다. 또는 도시에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겹친 시기의 결과는 도시화율의 높은 상승폭이다.

*2021-4-25일 1차 고쳐쓰기본*